

코로나19 예술계 피해 대응회의 결과공유

1. 일정 :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12시

2. 장소 : 영등포문화재단 2층 대표이사실

3. 참석자 :

경험과상상 대표, 보노보C 대표, 극공작소 마방진 대표, 문래예술공장 매니저, 강원재 대표 외 재단관계자

I. 자문회의 결과 및 정책제언

- 문화예술교육사업은 1,2월에 기획하여, 3월부터 교육을 진행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지면서 회사로서 적자뿐 만 아니라 강사들의 실제 생계에 영향을 끼침. 이전 메르스 사태에는 공공사업을 통해 부담을 줄였고, 이번 피해 대응 지원사업이 예술가와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공공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길 바람
- 공연은 지방투어, 어린이, 가족공연의 대부분이 취소 또는 연기되었고, 연기된 일정으로 인해 하반기 일정까지 연계되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취소, 연기된 공연은 대부분 계약서 상의 배상책임이나 재난상황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취소에 대한 부담을 단체에서 떠맡고 있음. 이것이 표준계약서 등의 행정가이드로 일부분 명기되기만 하여도 단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음
- 메르스 사태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형식은 소규모 유닛이나 개인 예술가를 지원하기 어렵고, 지원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 단순한 이벤트 성이 아닌 창작활동과 실제 예술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야 함. 대관료 지원, 역량강화 등의 간접지원형식이 좋은 방안임. 집합연수, 단체 자체연수, 개인 창작활동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공백기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임. 공공기관과 단체가 기획하는 교육비 지원형 집합연수를 통하여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부분을 배우거나, 단체의 창작준비활동과 단원 개인역량강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자체적인 연수 지원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숨 고르며 넘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음. 3-4월 축제, 행사를 통해 활동하는 개인 예술가, 소규모 유닛 등 기존 지원정책에 고려되지 않았던 그룹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이 필요함. 이를 통하여 또 다른 형식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음.
- 많은 단체들이 이번 사태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관객과 시민들의 위축을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해야 함. 향후 문화예술향유에 상호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공연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캠페인 또한 고려할 수 있음. 상업적, 규모가 큰 공연과 단체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소규모 단체 혹은 개인 예술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하여 지원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더불어 1,2월은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로 인한 사업 공백기인데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후 메르스때처럼 단기처방형 행사지원사업이나 1~2월기간 공연취소연기에 따른 보상형 지원비가 대규모로 몰릴 시, 치러내기식 사업으로 작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공공성 훼손 등의 어려움 또한 예상됨.

- 앞으로 코로나19 외에도 미세먼지와 같은 보이지 않는 자연재해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시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것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예산과 기금, 재난대비 대체 콘텐츠나 매뉴얼 등의 기반을 갖춰둬야 함. 후에 논의되는 대안들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 사례와 매뉴얼제작, 보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주관부서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무엇보다도 예술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동행하는 자세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함.